

주춤했던 민간공원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급물살 탈 듯

개발행위 특례법 사업조정협의회 구성... 오늘 첫 회의

검토 후 이견 없으면 다음달 5일 공원위원회 상정 추진

초대형 80평대 없애고 서민형 소형 아파트 부활 집중 논의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주춤했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첫 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4월 공원위원회 상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관련부서에 “더 이상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선 안된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안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앙근린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법 사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연다. 11명으로 구성된 사업조정협의회는 광주시 담당 국장 등 3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빗고을 중앙공원개발(주) 대표 3명을 비롯한 건축, 공원, 도시 분야 전문 교수 3명, 회계사 1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등 외부에서 5명이 참여한다.

사업조정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안 중 초대형 아파트 논란이 일고 있는 80평형대 아파트를 중소형 서민 아파트로 변경하는 안과 소형 평형대 부활, 평당 분양가를 낮추는 안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업자측과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으며, 사업자측으로부터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다만 이번 협의회 구성의 단초를 제공한 사업자 중 한 업체인 한양이 제안했던 3.3㎡당

1600만원대 아파트 선분양 조건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완화한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3.3㎡당 1500만원대를 넘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측이 중앙공원 1지구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2021년 2월 26일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선분양 기준 3.3㎡당 1323만 5837원이 적정 분양가로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측은 “HUG심사기준에 의하면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는 평당 1400만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빗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4차례 계획 변경을 통해 평당 1900만원에 후분양으로 합의 했지만, SPC 최대 주주인 한양이 선분양을 조건으로 1600만원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했다.

광주시는 한양측이 제안한 선분양 기준 평당 1600만원대 사업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조정협의회를 최대 3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한양측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안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기본 사업안 자체가 지난 2년 동안 관련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내용이고, 논란이 된 초대형 아파트 분양 변경에 대해서도 사업자측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계획안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는 협의회 검토·조정 등을 거쳐 사업계획안



비공원 면적 최소화 등 전국적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중앙공원 1지구 내 품앗이수공원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이 확정된다면, 오는 4월 5일 광주시 공원위원회 상정에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사업계획안 확정지 지연될 경우 토지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 차질 등 각종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가 조만간 끝나는 점도 부담이다. 감정평가 후 토지주들에게 토지 보상을 해야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개발 성격이 강한 만큼 80평형대 초대형 아파트 건설 만큼은 안된다”는 시민 여론이 강하다”면서 “사업자측과 협상을 통해 초대형 아파트를 없애는 대신 소형 평형 아파트를 포함하는 등 논란이 된 부분만 해결된다면 사업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와 4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지난 2월 1일 후분양 기준 3.3㎡당 1900만원(분양 아파트 평균 1900만원, 임대 아파트 평균 1533만원)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비공원 면적은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가장 낮은 8.17%를 적용해 19만 8000여㎡, 용적률 214.33%로 정했다. 아파트 세대 수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규모 평형으로 분류된 85㎡ 이하를 없애고, 85㎡ 이상 중대형 평형 1828세대(80평형대 103세대), 임대 아파트는 85㎡ 이상이 703세대, 85㎡ 이하가 296세대다. 전체 아파트 세대 수는 2827세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영화산업 활성화 지원

광주시가 광주극장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영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광주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지역 영화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에 이어 두 번째 코로나19 극복 특별 주간 대상인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 영화인들은 영화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교육, 아시아문화전당·광주극장·독립영화관 등을 활용한 영화제 육성, 취업·창업 생태계 구축, 단편영화 제작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주극장 등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영화 산업이 활성화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영화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예술계 지원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장흥 오리농장 AI 확진...도내 19번째

주요 가금농가·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일제 검사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던 장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옮겨울 들어 도내 19번째 확진 판정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밀 검사를 거쳐 22일 장흥 장평면 모 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1일 해당 농장에서는 전남도의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가축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2만수를 살처분한 데 이어, 반경 1km 내 가금농장 2곳에서 사육 중인 가금 3만9000수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한 도내 오리 도축장 4곳, 사료공장 및 하치장 16곳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진행했다.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도내 주요 가금농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을 일제 검사하고 있다. 농가

270곳,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등 56곳이 일제 검사 대상이다.

장흥 신규 확진 농장을 포함해 전남에서는 옮겨울 들어 8개 시·군에 걸쳐 모두 19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살처분된 가금만 376만수를 웃돈다. 발생농장 19곳에서 65만5000수를 살처분하고, 인근 76개 농장에서 311만수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축종별로는 양계농장 32곳에서 268만2000수, 오리농장 63곳에서 108만3000수를 살처분 또는 예방적 살처분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10개 시·도에 걸쳐 106건의 AI가 발생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남도,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1인당 10만원씩 8만9천여명 혜택...지난해 이용률 91%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전남도내 이용실적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애초 계획 대비 91%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 문화누리카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5년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도입했다. 국가로부터 복권기금(70.8%)을 지원받아 도비와 시군비를 더해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1장으로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전남에 있는 1200여 가맹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교통비로 고속버스, KTX, 여객선 이용요금 등에 편리하게 쓰면서 문화관광을 즐기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8만6000여명이 70억5236만

원 규모를 이용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운영 주관처인 전남문화재단과 22개 시·군이 가맹점을 확대 발굴하는 등의 노력으로 예산 대비 이용률 91%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억7100만원이 늘어난 89억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 1인당 카드사용 한도액을 지난해 9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문화소외계층 8만9192명이 수혜 대상이다.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고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재충전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름에 걸맞게 문화예술 분야 다양한 혜택을 누리도록 가맹점 발굴을 확대하고, 더 쉽게 사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읽습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투자

20년경력. 010-3605-5000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3평)

금액 71억

(부동산 중개인 사절합니다)

4월 30일까지만 추진합니다

문의 010-6432-5070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악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종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미를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석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속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81-5
삼성플러스빌딩 5층 501호

합병 및 주권제출 공고

“갑”과 “을”은 각각 2021년 3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고 “을”은 해산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의의가 있는 “갑”과 “을”의 재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을”의 주주는 동 기간 동안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병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공시일 총률 : 토공사업(등록번호 : 광주북2020-02-10)
2. 합병예정 연월일 : 2021년 4월 27일
3. 의견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 ~ 2021년 4월 26일
4.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이외(또는 의견) 및 주권제출처 : “갑”과 “을”의 본점장소

2021년 3월 24일
갑 : **주식회사 삼지건설**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2
대표이사 선종인
을 : **삼지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백련길 46-12
사내이사 선종인

회사분할합병 및 상리사업양도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제출공고)

농림회사법인 대한임업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건승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1. 3. 24.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권(영업)의 일부인 자 연유양립 등 조성업 부분은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과 “을”은 그 재무를 연대책임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해 수반하여 다음 상리사업 인허가를 인도하기 위하여 합병 제527조5의5(항과 건설산업 기본법제18조의 5)에 따라 이를 공고하오니 이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재권자는 본 공고 게재익일부터 1개월이내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 사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합병(영도대상 등록권 : 전남 2017-014
2. 분할합병(영도대상) : 2021. 4. 26.
3. 양도자 “갑” **농림회사법인 대한임업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이안면 용평리 1198-1
대표이사 원소영
4. 양수자 “을” **주식회사 건승**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82.5층(봉명빌딩)
대표이사 오 란수

산행안내

3월28일(일)
▲**광주Kj산악회** 3월28일(일)
경기 의왕, 한남정맥&백운산, 광교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분화예술매거진
세나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